

소유가 없다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소유란 사실 잃음의 전제가 아닌가요. 소유가 없다면 잃을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하되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다면 그는 소유의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나’가 인연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장, 신임사무국장과 지원부서장 간담회 가져 ‘소통으로 건강한 거버넌스 만들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병원장은 5월에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임 사무국장에 임명된 고기환 사무국장과 지원부서장들을 만나 조직개편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병원 운영 방침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권범선 병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구성원들과 부서간의 효율적 소통으로 공감하는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겠다”며 신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지원부서장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고기환 사무국장은 ‘화이부동’과 ‘패치워크’의 예를 들며 “자기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고, 쫓대 없이 남의 의견을 따르거나 편 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다른 것이 모여 패치워크를 이루듯이 각각의 개성과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는 패치워크처럼 원활한 소통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자”고 했다.



환자의 일상생활 속 건강정보를 진료에 이용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모바일 앱 오픈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환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 개발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새로운 ‘환자용 모바일 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환자용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진료예약, 검사결과 확인, 모바일 제증명 발급 등 다양한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환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하는 운동·식사·수면 등의 개인건강데이터(PHR)를 기록하면 이를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계하여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외래 환자가 수납 대기줄 없이 빠르게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처방전은 환자용 앱을 통해 인근 외부 약국으로 직접 전송 가능한 전자처방전달 서비스도 가능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환자용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검색 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일산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5월 8일 1층 로비와 3층 한방 외래에서 ‘의료기관 인증 현판식’을 각각 진행했다.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4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작년 10월 26일부터 27일 이틀동안 시행된 일산한방병원 3주기 한방병원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일산한방병원은 우수한 성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4년 동안 의료기관 인증획득 병원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 참석

환희와 구법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 해단식을 5월 2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봉행했다.

회주 자승스님은 인도순례를 통해 얻은 것을 우리 사회에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회향이고 해단식의 의미라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길에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공포된 대학생 전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채석래 의료원장이, 전법위원으로 김광기 기획처장이 위촉되었다. 한편, 회주 자승스님은 예비순례부터 자비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평화방생순례, 인도순례에 이르기까지 상월결사 의료팀장으로서 빠짐없이 역할을 수행한 김명숙 대외협력홍보팀장에게 순례정진패 및 완보증서와 함께 기념으로 금목탁을 수여했다.



신경과 김동역 교수팀, 뇌경색의 예후가 여성에서 더 나쁜 이유 밝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역 교수와 정진용 박사, JLK 상무이사 류위선 박사(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교수)연구팀은 전국 11개 대학병원 신경과와 협력 연구를 통해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한 6,464명의 MRI영상 및 임상데이터를 분석하고 예후를 추적 관찰한 결과 뇌경색의 예후가 여성에서 더 나쁜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뇌경색의 증상이 좀 더 심하고, 3주 이내 악화될 가능성이 3.5% 더 높았으며, 3개월째 독립적 생활을 못할 가능성이 4.5% 더 높았다. 이러한 남녀 차이는 특히 50대 이상에서 더 두드러졌으며, 여성 환자에서 중대뇌동맥 협착의 빈도와 운동 신경을 침범하는 뇌경색의 빈도가 각각 약 5% 정도 더 흔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한국연구재단(대학중점연구소 및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고양시, 그리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참조표준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미국 신경과학회 학술지 ‘Neurology(Impact factor: 12.26)’에 발표됐다.



소화기내과 임윤정, 오동준 교수, 미국 소화기학회, DDW에서 연구논문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윤정, 오동준 교수팀은 5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소화기학회, DDW(Digestive DiseasesWeek)에서 차세대 캡슐내시경, 빅데이터 기반 관련 연구 3편을 발표했다. 특히, 오동준 교수는 “Efficacy and Safety of Three Dimensional Magnetically Assisted Capsule Endoscopy for Gastric and Small bowel examination”의 제목으로 구연 발표를 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미국 소화기학회, DDW는 전 세계 소화기내과 의사들이 모이는 가장 큰 학회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소화기 관련 전문가들이 관련 최신 연구를 발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많이 배우고 서로 학문적 자극을 받는 학회이다.



소화기내과
임윤정 교수

소화기내과
오동준 교수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평가 인증 획득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22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에서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고, 인증마크 사용과 함께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3년 4월 28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 3년이다. 이번 인증 획득의 의미는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이 기관 내 운영 근거와 인프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실질적 역할 등이 과학적이고 한방 IRB 운영의 질적 우수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용문사 사찰순례 다녀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에서는 4월 29일 양평 용문사로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이날 사찰순례는 지도법사 능지스님, 이해원 연우회 회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등 약 90여 명의 연우회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순례는 용문사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느끼며, 퍼즐 맞추기 게임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의 잎 모양 소원지를 작성하는 ‘소원을 말해봐’ 게임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